

원자력학회는 한국 원자력 중흥의 동반자입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한국 원자력이 다시 떨치고 일어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자력산업」 독자 여러분과 원자력인 모두 건강과 행복을 가득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몇 년간 탈원전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 원자력계의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자력의 중흥을 모색하는 올해는 원자력의 기술기반과 국민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려 합니다.

첫째,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학회 홈페이지를 신뢰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자력 정보 창고로 만들

겠습니다. 국민이 해외 원자력 소식을 접하고 해외에서는 우리 원자력 소식을 접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원자력연구원, KAIST, 서울대, 부산대와 참여하여 추진하는 초·중·고 교원 직무연수와 후속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원자력 이해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활동도 지속할 것입니다. 지역지부와 협력하여 원전 지역 지자체, 민간환경감시기구,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학회의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려 합니다. SMR 개발과 인허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리·처분, 합리적 계속운전 제도 운영,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 방향 등 중요한 주제들이 많습

니다. 다른 에너지 관련 학회들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국가 에너지믹스와 실현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학회의 국제화와 국제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종합학술지로 발돋움한 NET(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는 우리 학회뿐만 아니라 한국 원자력계의 자랑입니다. 국외 지부들을 재활성화하고, 해외 원자력학회 및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월에 ICAPP 2023(2023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을 주관하고, 춘계학회에서 2건의 OECD/NEA와의 협력 행사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국제학술행사들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넷째, 회원들이 더욱 큰 애정과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임기 동안 회원수와 연회비 납부율을 각각 20%씩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새해를 맞아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려 합니다. 각 기관과 연구부회 간부들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입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여년 간 기술집약적 준국산에너지로서 고품질의 전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무역수지 개선, 에너지 복지 등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최근 EU 탄소노미와 K-탄소노미에서 원자력을 녹색금융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역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화학 공정 등을 위한 열 공급, 다양한 해양 및 우주 동력원, 극지 및 오지 전력 공급을 위한 원자력 이용의 확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은 50여년 간 국민의 지지와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탈원전 기간의 아픔을 교훈 삼아 역지사지, 타산지석의 자세로 원자력계 내부는 물론 다른 에너지 분야와의 상생에 앞장서고, 지역주민과도 적극적으로 상생하는 산업 분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자력인 모두와 더불어 원자력학회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학회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개선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토끼의 해인 2023년에 한국 원자력이 더욱 크게 도약하고, 원자력인들이 성취와 보람과 건강과 행복을 가득 누리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NIF**